

2014년 임원보수공시 현황 분석

강 정 민

목 차

요약

I. 서론

II. 분석대상, 방법 및 한계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3. 분석의 한계

III. 분석결과

1.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 (1) 개별임원보수 공시 내역
 - (2) 기업집단별 공시 현황
 - (3) 2013년 공시와의 비교
2. 임원 보수액 분석
 - (1)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 비교
 -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비교
 -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비교
 - (4) 임원과 직원 비교
3. 그룹별 임원 보수액 분석 (퇴직금 등 제외)
 - (1) 그룹별 임원 보수 현황 및 보수격차
 - (2) 총수일가의 보수액
 -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보수액 비교
 - (4) 2014년 중 퇴임한 총수일가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

IV. 맺는 말

요 약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작년에 이어 2014년도 임원보수 현황을 조사·분석함
 - 분석대상 회사는 총 1,760 개사로 2013년 대비 94 개사 증가하였고, 대상임원의 수는 2,350 명 증가한 10,929 명이었음
 - 대상회사 및 임원수 증가는 12 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 추가, 신규상장, 결산일 변동 등으로 인한 것임
- 분석대상 1,760 개 상장회사 중 436 개사(24.77%)가 한 명 이상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였고, 분석대상 임원 10,929 명중 649 명(5.94%)에 대한 보수액 공시가 이루어졌음
 - 여전히 회사 임원 중 75%에 대한 보수내역이 전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한 명 이상의 임원에 대해 보수내역을 공시하는 회사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730 개사 중 288 개사(39.45%), 코스닥 상장회사 1,030 개사 중 148 개사(14.37%)임
 -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임원 4,955 명 중 470 명(9.49%),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 5,974 명 중 179 명(3.00%)이 5 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그 내역을 공시함
 - 한 명 이상의 임원에 대해 보수내역을 공시하는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49 개사 중 164 개사(65.86%), 기타회사 1,511 개사 중 272 개사(18.00%) 임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 1,796 명 중 297 명(16.54%), 기타회사의 임원 9,133 명 중 352 명(3.85%)이 개별보수 내역을 공시함
- 임원 보수액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이 285 백만원 (유가증권 상장회사 405 백만원, 코스닥 상장회사 200 백만원)인 반면, 개별보수 공시 대상인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은 1,257 백만원 (유가증권 상장회사 1,380 백만원, 코스닥 상장회사 932 백만원)으로 그 보수격차가 4.41 배였음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개별보수 공시대상 임원들의 평균보수액(1,521 백만원)은 해당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678 백만원) 보다 2.24 배 많았으며, 기타회사 소속회사의 개별보수 공시대상 임원들의 평균보수액(1,034 백만원)은 해당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223 백만원) 보다

무려 4.64 배 많았음(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제외, 이하 대규모기업집단과의 비교 수치는 모두 동일함)

-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 임원들의 평균보수액 2,052 백만원은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액 1,309 백만원보다 1.57 배 많았고, 기타회사 총수일가 임원의 평균보수액 1,054 백만원은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 995 백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직급별 보수액 분석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대표이사과 이사의 보수격차가 1.2 배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이는 총수일가가 특별한 근거 없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퇴직금을 제외하고 보수액을 산정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는 1.57 배에서 1.66 배로 더 커졌고, 직급간 보수격차도 대표이사 1.60 배에서 1.74 배, 이사 1.57 배에서 1.59 배로 각각 더 확대되었음
- 대규모기업집단의 사내이사 평균보수액 678 백만원은 직원 평균보수액 70 백만원의 9.75 배였고, 기타회사의 사내이사 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은 직원평균보수액 48 백만원 보다 4.61 배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보수 수령 최상위 임원과 일반직원 간 보수는 최대 142.87 배 차이가 났고, 100 배 이상 보수격차가 발생하는 사례만 5 건이었음. 상위 10 위권의 보수격차는 63.48 배, 상위 20 위권 52.04 배, 상위 30 위권 45.99 배, 상위 40 위권 38.96 배로, 일반 직원들과 상당히 큰 보수격차를 보이고 있음

■ 그룹별 보수액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퇴직금 제외)

- 분석대상 48 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249 개 계열사 1,796 명 임원의 평균보수액은 181 백만원,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평균 보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8.41 배였음(퇴직금은 보수액 산정에서 제외)
-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과 나머지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을 비교하면, 한진그룹의 보수격차가 50.33 배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LG 그룹(16.23 배), 한국타이어그룹(15.66 배), 효성그룹(14.78 배) 순이었음
- 총수일가의 보수액은 현대차그룹 정몽구가 3 개 계열사로부터 총 10,750 백만원을 받아 그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뒤를 이어 한진그룹 조양호 6,100 백만원(4 개사), CJ 그룹 손경식 5,602 백만원(1 개사), SK 그룹 최신원 4,700 백만원(1 개사) 순이었음
-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가 가장 큰 사례는 LS 산전으로, 구자홍의 보수는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 보다 22.05 배, 구자균은

- 13.81 배 많았음. 그 뒤를 이어 한진칼 조양호 (10.17 배), 한솔케미칼 조동혁 (9.34 배), E1 구자용 (9.15 배) 순이었음
-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이 2 인 이상 있는 회사에서 보수액 최상위와 차상위 간의 보수격차는, 현대차그룹 정몽구-정명철로 최대 5.87 배였음. 그 다음으로 대한항공 조양호-조현아 5.74 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심상배 4.97 배 순임
 - 2014 년에 퇴직한 총수일가의 퇴직금 수령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 정몽구가 10 년 3 개월 재직에 10,820 백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17 년 재직, 8,075 백만원), 한화 및 한화케미칼 김승연 (총 8,815 백만원) 순이었음

2014 년 임원보수공시 현황 분석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I. 서론

2013 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연간 보수액이 5 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개정에 따라 2013 년 11 월 29 일 이후 공시되는 사업(분반기 포함)보고서부터 임원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고 있으며, 2013 년 12 월말 결산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2014 년 3 월 31 일 까지 제출) 부터 임원보수 공시가 전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작년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마감(2013 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인 2014 년 3 월말) 직후 전수조사를 통해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현황을 확인하고 동 공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선과제”¹ 보고서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기업집단과 일반기업 임원 간의 보수액을 분석한 “2013 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간 비교분석”²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2013 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작년 보고서의 분석결과, 한 명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전체 상장회사의 25.09% (유가증권 상장회사 38.94%, 코스닥 상장회사 15.03%), 전체 임원의 7.46% (유가증권 상장회사 11.46%, 코스닥 상장회사 3.9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회사의 극소수 임원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비교적 많은 보수를 수령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 임원의 경우 전문경영인과의 보수격차가 최고 25 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제출된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된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으로는 고액보수 수령의

¹ 강정민 (2014.4.4),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개혁리포트 2014-4 호, 경제개혁연구소

² 강정민·김우찬·이은정 (2014.4.29), “2013 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간 비교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4-6 호, 경제개혁연구소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총수일가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보수액을 수령하면서도 임원별 보수공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분석 결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5 억원에서 1 억으로 낮추고, 등기임원에만 국한하여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와 같이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CEO·CFO 및 보수상위 3 인을 의무적 공시대상으로 하고, 기업공시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³

본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2014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 현황과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것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상장회사 및 임원의 현황,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및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액 현황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임원보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수액 산정에 적절한 기준과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사항을 기업공시서식에 맞게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와 보수의 성과연동 여부에 관한 보고서 등의 후속 보고서도 계획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분석대상, 방법 및 한계

1. 분석대상

분석대상 회사는 결산기준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³ 이 중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금감원이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금감원 보도자료 (2014.2.9.), "2014년도 사업보고서 이렇게 바뀐다[서식개정]" 참조. 동 서식기준 개정에 대해 전년보다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i) 보수산정의 기본사항이라 할 수 있는 회사의 보수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ii) 성과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으며, iii) 서식기준상 임원의 보수가 장기성과에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예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제개혁연대 논평 (2015.2.10),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의 취지 살리기에는 여전히 미흡" 참조.

인 상장회사(유가증권 상장회사 및 코스닥 상장회사) 중 투자회사(선박, 부동산), 스팩 등을 제외한 법인으로서, 총 1,760 개사이다(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법인 및 코넥스 상장회사는 분석에서 제외함).

분석대상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에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된 유가증권 상장회사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2015년 3월 31일까지인데 사업보고서 제출 후에도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는 4월 1일자 정정공시까지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사업보고서 상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회사들이 있어 이들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기중 결산기가 변경되어 2개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두개의 사업보고서 모두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정확히 모든 상장회사가 포함된 것은 아니며(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제외) 검토대상 회사수는 실제 검토대상 회사수 보다 적을 수 있고, 분석대상 1760개사는 엄격한 의미로는 검토대상 사업보고서 숫자이다.

2. 분석방법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통해 한 명 이상 임원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 및 이사의 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분석,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간의 보수 현황 및 비교, 그룹별 임원 보수액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5억 원 이상의 보수공시에 있어서 보수는 크게 급여, 상여, 기타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성과금을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고서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보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보고서 중 일부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퇴직금은 회사가 보고한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중 퇴직금 한도초과액 등 퇴직금 관련 급여를 포함하였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분석한 것은 본 보고서의 III-3. 그룹별 임원 보수액 분석이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또는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i) 임원 : 상법상 임원은 등기된 이사와 감사를 포함
- ii) 임원수 : 본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원(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수는 회사가 작성한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음
- iii) '대규모기업집단'은 2015년 4월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의미하며, '기타회사'는 전체 상장회사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임. 대규모기업집단에는 한국전력과 같이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9개의 기업집단도 포함되어 있음.⁴
- iv) '총수일가'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인척, 그리고 공동경영을 영위하는 자⁵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전문경영인'은 총수일가가 아닌 임원을 의미
- v) 임원보수 평균 : 사내이사 보수 평균

3. 분석의 한계

① 사업보고서 공시작성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회사마다 공시하는 방법 및 기준이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상 보수지급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이사 부분에는 사내이사만을 포함시켜야 하나⁶ 일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사내이사의 인원 및 보수지급액을 기재하는 데 있어 임기만료로 사임한 이어나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금 등 일부 항목을 총 보수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⁷

⁴ 2015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총 61개의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20개이나, 이중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인 기업집단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KT&G 등 9개이다.

⁵ 영풍그룹의 경우 장형진 일가와 최창걸 일가가 공동경영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은 장형진임. 영풍그룹 소속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경우 영풍이 최대주주이고 장형진이 2대주주이나, 최창근(대포이사 회장)만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는 최창근을 총수일가로 분류하였다.

⁶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 주주총회 승인금액 중 「구분」은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구분방식을 달리하여 보수 총액을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구분방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⁷ 기업공시서식에는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 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또는 제 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회사가 기재한 내용이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였다고 가정하고 회사가 공시한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임원보수가 일부만 공시됨에 따른 문제⁸

모든 임원의 보수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만 공시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도 있다. 즉,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진 간 보수 격차 분석”⁹의 경우 5 억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총수일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5 억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총수일가의 숫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일가는 모두 5 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또, “보수액 최상위와 차상위 수령자 분석”¹⁰의 경우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5 억원 미만으로 공시한 임원이 차상위 보수수령자일 수는 있으나(즉, 본 보고서 상의 차상위 수령자가 실제 차상위 수령자가 아닐 수 있음),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된 임원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1) 개별임원보수 공시 내역

결산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상장회사는 총 1,760 개사이며, 이중 유가증권 상장회사 (KOSPI)는 730 개사이며, 코스닥 상장회사 (KOSDAQ)는 1,030 개사이다.

임원의 연간보수총액이 5 억원을 넘어 해당 내역을 공시한 회사의 수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288 개사 (39.45%), 코스닥 상장회사 148 개사 (14.37%)로, 전체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⁸ 동 내용은 각 부분에 다시 기술하였음

⁹ 보고서 III-3-(3)-1)

¹⁰ 보고서 III-3-(3)-2)

상장회사 1,760 개사 중 436 개사가 최소 한 명 이상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였고, 그 비율은 24.77%였다.

임원의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속하는 회사들의 임원수는 총 4,955 명이었는데, 이중 470 명의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었다. 즉, 유가증권 상장회사 임원의 9.49%가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공시대상이 된 것이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의 총수는 5,974 명이었는데, 이중 개별임원보수를 공개한 임원의 수는 179 명 (3.00%)으로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낮았다. 전체 상장회사의 임원 10,929 명 중 총보수액이 5 억원 이상인 임원은 649 명, 5.94%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여전히 상당수의 상장회사 및 임원이 개별임원 보수 공시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표 1> 상장회사의 임원별 보수 공시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대상 회사수	임원별 보수 공시 회사수	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의 수	비율(%)
유가증권 상장회사	730	288	39.45%	4,955	470	9.45%
코스닥 상장회사	1,030	148	14.37%	5,974	179	3.00%
전 체	1,760	436	24.77%	10,929	649	5.94%

(2) 기업집단별 공시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그룹 중 상장회사는 총 249 개사인데 이중 임원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164 개사로, 그 비율은 65.86%였다. 전체 상장회사 중 임원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의 비율이 24.77%이고, 대규모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회사들의 공시 비율이 18.00%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임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 대상임원 1,796 명중 297 명 (16.54%)이 보수 공시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율 또한 전체 상장회사 임원들의 평균인 5.94%와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닌 나머지 회사들의 평균인 3.85%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이다.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사내이사들로 한정하여 현황을 파악할 경우 보수가 공시되

는 임원의 비율의 차이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임원별 보수 공시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대상 회사수	임원별 보수 공시 회사수	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의 수	비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49	164	65.86%	1,796	297	16.54%
기타회사	1,511	272	18.00%	9,133	352	3.85%
전 체	1,760	436	24.77%p	10,929	649	5.94%p

기업집단별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별 보수를 공시를 한 계열회사의 비율이 높은 그룹은 삼성그룹 18 개사, 현대차그룹 11 개사, 한진그룹 및 코오롱그룹 각 6 개사,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한진중공업그룹, 한국타이어그룹, 한라그룹 각 3 개사, KCC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미래에셋그룹 각 2 개사, 대우건설그룹, 대우조선해양그룹, S-Oil그룹, 삼천리그룹 등 각 1 개사 등으로 모두 그 비율이 100% 였다.

둘째, 개별임원보수 공시 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그룹 (35.29%), 한국타이어그룹 (31.25%), 포스코그룹 (31.11%), 현대백화점그룹 (30.61%), 현대자동차그룹 (30.34%) 순으로 임원의 개별보수가 공시되었다.

셋째,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임원보수 공시 대상자가 많은 그룹을 보면, 삼성그룹 (48 명), 현대자동차그룹 (27 명), SK그룹 (21 명), LG그룹 (18 명) 등 순으로 자산총액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집단별 개별임원보수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업집단별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그룹명	상장계열사 수	임원별 보수 공시 회사수	비율(%)	상장계열사 임원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수	비율(%)
교보생명보험	1	-	0.00	5	-	0.00
금호아시아나	4	1	25.00	33	1	3.03
농협	3	-	0.00	31	-	0.00
대림	3	-	0.00	19	-	0.00
대성	6	3	50.00	37	3	8.11
대우건설	1	1	100.00	7	1	14.29
대우조선해양	1	1	100.00	8	1	12.50

동국제강	3	1	33.33	35	2	5.71
동부	8	3	37.50	44	3	6.82
두산	6	5	83.33	45	10	22.22
롯데	8	6	75.00	58	12	20.69
미래에셋	2	2	100.00	12	3	25.00
삼성	18	18	100.00	136	48	35.29
삼천리	1	1	100.00	11	1	9.09
세아	4	2	50.00	25	2	8.00
신세계	7	5	71.43	38	7	18.42
씨제이	9	8	88.89	52	12	23.08
아모레퍼시픽	2	2	100.00	15	4	26.67
에스케이	17	14	82.35	114	21	18.42
에쓰-오일	1	1	100.00	7	1	14.29
엘에스	6	5	83.33	42	8	19.05
엘지	12	11	91.67	88	18	20.45
영풍	6	2	33.33	43	2	4.65
오씨아이	7	4	57.14	45	8	17.78
이랜드	1	-	0.00	6	-	0.00
지에스	8	5	62.50	60	7	11.67
케이씨씨	2	2	100.00	20	4	20.00
케이티	9	1	11.11	71	2	2.82
케이티앤지	2	1	50.00	13	1	7.69
코오롱	6	6	100.00	44	7	15.91
태광	4	1	25.00	26	1	3.85
태영	4	1	25.00	32	1	3.13
포스코	7	5	71.43	45	14	31.11
하이트진로	2	-	0.00	13	-	0.00
한국가스공사	1	-	0.00	18	-	0.00
한국전력공사	3	-	0.00	30	-	0.00
한국타이어	3	3	100.00	16	5	31.25
한라	3	3	100.00	33	4	12.12
한솔	11	3	27.27	63	4	6.35
한진	6	6	100.00	41	8	19.51
한진중공업	3	3	100.00	20	4	20.00
한화	7	4	57.14	61	10	16.39
현대	3	3	100.00	25	5	20.00
현대백화점	6	5	83.33	49	15	30.61
현대산업개발	2	1	50.00	14	1	7.14
현대자동차	11	11	100.00	89	27	30.34
현대중공업	3	3	100.00	15	4	26.67
효성	6	1	16.67	42	5	11.90
합계	249	164	65.86	1,796	297	16.54

(3) 2013 년 공시와의 비교

2014 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별 보수는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임원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의 단순 수를 비교해 보면,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38.94%에서 39.45%p 증가한 반면, 코스닥 상장회사는 15.03%에서 14.37%로 0.66%p 낮아졌으나, 전체적으로 올해의 공시회사 비율 24.77%는 전년의 25.09%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0.3%p 차이).

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다. 즉, 작년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별 보수공시 회사 비율은 59.77%에서 65.86%로 무려 6.09%p 증가하였으나, 기타회사의 경우 18.00%로 작년의 18.79%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공시대상 회사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2014 년			2013 년		
		대상 회사수	임원별 보수 공시 회사수	비율(%)	대상 회사수	임원별 보수 공시 회사수	비율(%)
상장회사 구분	유가증권 상장회사	730	288	39.45	701	273	38.94
	코스닥 상장회사	1,030	148	14.37	965	145	15.03
기업집단 여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49	164	65.86	256	153	59.77
	기타회사	1,511	272	18.00	1,410	265	18.79
전 체		1,760	436	24.77	1,666	418	25.09

공시대상 임원의 현황을 작년과 비교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분석대상 회사의 수가 1,666 개사에서 1,760 개사로 5.6% 증가한 반면 공시대상 임원의 수는 8,579 명에서 10,929 명으로 27.3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공시대상 임원의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¹¹ 즉, 올해 전체 상장회사의 임원별 보수 공시 비율 5.94%는 작년의 7.47%에 비해 1.53%p가량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작년에 11.48%의 임원 총보수액이

¹¹ 2013 년 대비 대상회사수는 94 개가 증가하였으나, 대상회사 임원수는 2,350 명이 증가하였다. 대상회사수가 증가한 것은 12 월말 법인이 아닌 회사가 추가, 신규 상장, 상장폐지, 결산일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대상회사 임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해 분석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 수를 제외하였으나 올해는 제외하지 않았고, 지난 해는 회사 공시 내용 중 이사 수가 과다 기재 (ex. 사내이사 숫자에 등기임원 숫자를 기재)한 경우 일일이 확인하여 제거하였으나 올해는 회사의 공시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5 억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그 비율이 9.49%로 1.99% 감소하였으며, 코스닥 상장회사도 3.96%에서 3.00%로 감소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에도 임원별 보수공시 대상자의 비율이 낮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올해 보수공시 대상자 임원의 비율이 16.54%였는데, 이는 작년의 17.71%에 비해 1.17% 가량 낮아진 것이다.

<표 5> 공시대상 임원의 현황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2014년			2013년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의 수	비율(%)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의 수	비율(%)
상장회사 구분	유가증권 상장회사	4,955	470	9.49	4,006	459	11.48
	코스닥 상장회사	5,974	179	3.00	4,573	181	3.96
기업집단 여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1,796	297	16.54	1,621	286	17.71
	기타회사	9,133	352	3.85	6,958	354	5.09
전 체		10,929	649	5.94	8,579	640	7.47

2. 임원 보수액 분석¹²

(1)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 비교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간 보수액이 5 억원을 넘는 감사는 없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근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할 정도(5 억원 이상)의 보수액을 수령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임원별 보수액이 공시된 경우는 전부 사내이사로 볼 수 있다. 이하 임원 보수액 분석은 사내이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15.3.31. 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760 개사의 상장회사 중 연간 보수액이 5 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총 436 개사, 649 명의 이사였고, 이들의 연간보수액 평균은 1,257 백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상장회사의 사내이

¹² 평균보수액은 회사가 공시한 사내이사수와 이사들에 대한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단순계산하였다. 따라서 회사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가 있는 경우도 이사수에는 포함되나 해당 이사의 보수총액은 "0"인 경우도 있으며 중간 퇴임한 임원들의 경우 회사마다 표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보수총액의 포함내용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임원평균 급여는 아님을 밝힌다.

사 5,924 명의 평균보수액인 285 백만원의 4.41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전체 사내이사의 수는 2,464 명이며, 이들이 2014 년도에 수령한 보수총액은 997,057 백만원으로, 임원 1 인당 평균 405 백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보수총액이 연간 5 억원 이상으로 임원별 보수액이 공시되는 임원 470 명이 받은 보수총액은 648,875 백만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상장회사 사내이사 보수 총액의 절반이 넘었다. 이들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은 1,381 백만원으로, 유가증권 상장회사 임원의 평균보수액의 3.41 배였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사내이사 평균보수액이 200 백만원, 개별임원보수를 공시한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은 932 백만원으로 그 차이는 4.67 배였다.

<표 6> 상장회사의 임원별 보수 공시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전체 사내이사			보수액 5 억원 이상인 임원		
	대상회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유가증권 상장회사	2,464	997,057	405	470	648,875	1,380
코스닥 상장회사	3,460	690,655	200	179	166,770	932
전 체	5,924	1,687,722	285	654	815,645	1,257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비교

다음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 간 임원의 보수액 비교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임원(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은 678 백만원으로, 기타회사의 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의 3.04 배였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의 경우 임원의 평균 보수액이 다른 일반 회사의 임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보수액이 5 억원 이상인 고액 연봉 수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 평균보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 기타회사의 임원 평균보수액 1,034 백만원보다 488 백만원만은 1.47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기타회사 내에서의 평균보수액과 고액보수 수령자 간의 보수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고액보수수령자의 평균보수액 1,521 백만원은 사내이사 평균보수액 678 백만원의 2.24 배였으며, 기타회사의 고액보수수령자의 평균보수액 1,034 백만원은 사내이사 평균보수액 223 백만원에 비해 무려 4.64 배 많았다. 이와 같이 보수액 5 억원 이

상인 임원의 평균보수액과 전체 사내이사 평균보수액의 차이는 기타 회사의 경우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보다 매우 크다. 그 이유는 기타회사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비해 보수를 공시하지 않은 사내이사의 보수액이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

<표 7>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개별임원 보수액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전체 사내이사			보수액 5 억원 이상인 임원		
	대상회사 사내이사 수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상회사 임원수	보수총액	평균보수액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802	543,933	678	297	451,839	1,521
기타회사	5,122	1,143,789	223	352	363,806	1,034
전 체	5,924	1,687,722	285	649	815,645	1,257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비교

1)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보수액 현황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보수액 비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표 8>을 보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된 회사의 임원 297 명의 연간 보수액평균은 1,521 백만원으로, 기타에 소속된 회사들 352 명 임원의 연간 보수액평균 1,034 백만원보다 488 백만원 (47.20%)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85 명의 보수액평균이 2,052 백만원인데 비해 기타회사의 228 명의 총수일가 보수액평균은 1,054 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두 배 가까이 크게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은 이에 속하지 않은 기타회사들에 비해 매출액 및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액 규모가 더 큰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경영인의 보수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경영인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임원 (평균보수액 1,309 백만원)과 기타회사의 임원(평균 보수액 995 백만원) 간의 보수격차는 314 백만원, 3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보수가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닌 회사들 및 전문경영인의 보수에 비해 크게 높다는 의미이다.

<표 8> 연간 보수액 5 억원 이상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액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기타회사			평균금액 분석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차이액	격차(배)	2013 비교
총수일가	85	174,386	2,052	228	240,416	1,054	997	1.95	1.71
전문경영진	212	277,453	1,309	124	123,390	995	314	1.32	0.99
전체	297	451,839	1,521	352	363,806	1,034	488	1.47	1.29
차이	-	-	743 (1.57)	-	-	59 (1.07)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기타회사의 보수액 격차를 전년과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작년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회사의 총수일가는 기타회사의 총수일가에 비해 1.71 배의 보수를 수령하였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1.95 배로 늘었다. 기타회사 총수일가의 보수액평균이 2013 년 1,030 백만원에서 2014 년 1,054 백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수액이 2013 년 1,759 백만원에서 2014 년 2,052 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원과 기타 회사 임원간의 보수격차가 0.99 배에서 1.32 배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 퇴직금 제외 연간 보수액 5 억원 이상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액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기타회사			평균금액 분석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차이액	격차(배)
총수일가	85	137,824	1,621	228	206,605	906	2,528	1.79
전문경영진	212	207,213	977	124	102,986	831	1,808	1.18
전체	297	345,036	1,162	352	309,591	880	2,041	1.32
차이	-	-	644 (1.66)	-	-	76 (1.09)	-	-

한편, <표 8> 분석은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퇴직금을 제외하고 분석을 할 경우 <표 9>와 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1,621 백만원, 전문경영인은 977 백만원으로 차이가 1.66 배(644 백만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의 차이 1.57 배보다 증가한다. 기타회사의 경우도 총수일가 906 백만원, 전문경영인 831 백만원으로 차이가 1.09 배로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의 차이 1.07 배보다 확대된다.

2) 직급별 비교

직급별 비교는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직급별 보수액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평균 2,207 백만원의 보수를 받아 회사의 이사직을 맡는 경우인 1,842 백만원보다 평균 365 백만원 (1.20 배) 가량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맡는 경우 평균 보수액이 1,379 백만원으로 이사직급 평균보수액 1,038 백만원보다 1.33 배 더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직급에서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액을 비교해 보면, 대표이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전문경영인의 1.60 배, 이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전문경영인의 1.77 배의 보수를 받았다. 즉, 총수일가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 직급에 관계없이 전문경영인보다 1.6 배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타회사의 경우 직급에 따른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총수일가의 경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 1,006 백만원을, 이사직을 맡은 경우 1,210 백만원을 받고 있어 이사직의 평균금액이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대표이사의 직급 내에서 총수일가보다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대표이사인 총수일가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평균액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인 경우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표 10> 직급별 보수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배)

			대표이사(A)	이사(B)	(A)/(B)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인원수	56	29	1.93
		총금액	123,582	50,804	2.43
		평균금액(C)	2,207	1,752	1.26
	전문경영인	인원수	156	56	2.79
		총금액	215,099	62,355	3.45
		평균금액(D)	1,379	1,113	1.24
평균보수액 차이(C/D)			1.60	1.57	
기타	총수일가	인원수	174	54	3.22
		총금액	175,093	65,323	2.68
		평균금액(E)	1,006	1,210	0.83

전문경영인	인원수	82	42	1.95
	총금액	85,823	37,566	2.28
	평균금액(F)	1,047	894	1.17
평균보수액 차이(E/F)		0.96	1.35	

한편, 보수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하여 분석할 경우, 총수일가이든 전문경영인이든 직급에 따른 보수차이가 더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타회사의 총수일가의 경우, 퇴직금을 제외하면 대표이사가 이사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앞의 분석과 상치된다.

<표 11> 직급별 보수액 현황 (퇴직금 제외) (단위 : 명, 백만원, 배)

		대표이사(A)	이사(B)	(A)/(B)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	인원수	56	29	1.93
		총금액	103,886	33,938	3.06
		평균금액(C)	1,855	1,170	1.59
	전문경영인	인원수	156	56	2.79
		총금액	165,888	41,325	4.01
		평균금액(D)	1,063	738	1.44
평균보수액 차이(C/D)		1.74	1.59		
기타	총수일가	인원수	174	54	3.22
		총금액	159,514	47,091	3.39
		평균금액(E)	917	872	1.05
	전문경영인	인원수	82	42	1.95
		총금액	69,948	33,038	2.12
		평균금액(F)	853	787	1.08
평균보수액 차이(E/F)		1.07	1.11		

(4) 임원과 직원 비교

분석대상 상장회사 1,760 개사의 임원과 직원과의 보수차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분석대상 임원은 개별임원보수가 공개된 임원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¹³이며, 이들의 총보수액과 평균보수액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¹³ 사내이사의 평균급여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등기이사의 급여평균액을 사용하였다. 사업보고서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액을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등기이사” 해당란에 사내이사의 인원 및 보수지급액을 기재하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시켰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전체의 직원수는 976,802 명, 이들의 평균 보수액은 70 백만원이었으며, 기타회사 그룹의 전체 직원수는 537,265 명, 평균 보수액은 48 백만원이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의 사내이사의 수는 802 명, 이들의 연간보수액 평균은 678 백만원으로 직원평균보다 9.75 배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회사의 사내이사 5,122 명의 평균보수액은 223 백만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사내이사들에 비해 32.89%에 상당하는 보수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해당그룹 직원의 평균보수액 보다는 4.61 배 많은 것이었다.

<표 12> 임원보수 공시회사의 사내이사보수와 직원 보수액 현황 (단위:명, 년, 백만원)

	대규모기업집단			기타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인원수	총급여	평균급여
직원(A)	929,850	67,935,600	70	537,265	26,019,388	48
사내이사(B)	802	543,933	678	5,122	1,143,789	223
(B)/(A)	-	-	9.75	-	-	4.61

2013 년도와 2014 년도의 직원과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사내이사과 직원 간의 보수격차는 2013 년 9.18 배에서 2014 년 9.75 배로 더 커졌다. 이는 직원의 평균보수액 증가보다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타회사의 경우 사내이사과 직원 간의 보수격차가 5.00 에서 4.61 배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이 225 백만원과 223 백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직원의 평균보수액이 2013 년 45 백만원에서 2014 년 48 백만원으로 11.11%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3> 2013-2014 년 직원과 사내이사 평균보수액 비교 (단위: 백만원)

	2014 년			2013 년		
	직원(A)	사내이사(B)	(B)/(A)	직원(A)	사내이사(B)	(B)/(A)
대규모기업집단	70	678	9.75	67	615	9.18

회사마다 사임한 이사 및 급여를 받지 않는 이사 처리방법이 달라 실제 사내이사의 평균급여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타회사	48	223	4.61	45	225	5.00
------	----	-----	------	----	-----	------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회사 경영진의 합리적인 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표 14>에서는 국내 회사에서 최고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들이 같은 회사 일반직원들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상장회사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삼성전자 신종균이었는데, 작년 한해 동안 14,573 백만원을 받아 삼성전자 직원평균인 102 백만원 보다 142.87 배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무학 최재호 109.54 배, 제로투세븐 조성철 109.20 배, CJ제일제당 손경식 103.74 배, 한진칼 조양호 102.15 배 등 순으로 일반 직원보다 100 배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과의 보수액 차이 상위 10 위권의 보수격차는 63.48 배였고, 상위 20 위권은 52.04 배, 상위 30 위권은 45.99 배, 상위 40 위권은 38.96 배로 일반 직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수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와 기여도에 기인하지 않은 보수격차는 회사 및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차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14> 보수액 최상위자와 직원 간의 비교 (단위: 백만원, 배)

임원명	회사	보수총액 (퇴직금 제외)	직원평균급여	차이(배)
신종균	삼성전자	14,573	102	142.87
최재호	무학	3,251	30	109.54
조성철	제로투세븐	5,083	47	109.20
손경식	CJ제일제당	5,602	54	103.74
조양호	한진칼	1,611	16	102.15
권오현	삼성전자	9,388	102	92.04
정지선	현대백화점	3,897	54	72.17
신격호	롯데쇼핑	2,300	34	68.25
최신원	SKC	4,700	74	63.51
조석래	효성	4,063	64	63.48
홍석조	BGF리테일	2,898	47	61.66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4,436	73	60.77
정몽구	현대자동차	5,720	97	58.97
이부진	호텔신라	2,610	45	58.00
조동혁	한솔케미칼	2,616	47	55.66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3,774	70	53.91
윤부근	삼성전자	5,495	102	53.87
성기학	영원무역홀딩스	1,630	31	52.58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1,310	25	52.46

구분	LG	4,423	85	52.04
안유수	에이스침대	1,740	34	51.94
조시영	서원	1,800	35	51.43
이희상	엔씨소프트	3,286	65	50.84
김종호	소셜미디어 99	1,561	31	49.72
심임수	일진디스플레이	1,809	37	48.75
전필립	파라다이스	3,365	70	48.07
정몽구	현대모비스	4,290	90	47.67
황보경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604	34	47.34
임화섭	가온미디어	2,268	49	46.29
신동빈	롯데쇼핑	1,550	34	45.99
곽동신	한미반도체	2,037	48	42.64
조양호	대한항공	2,628	62	42.47
김창근	SK이노베이션	2,765	66	41.96
최양하	한샘	1,793	44	40.65
홍원식	남양유업	1,576	40	39.89
조수익	삼현철강	1,470	37	39.73
구자용	E1	2,855	72	39.65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2,784	71	39.21
서승화	한국타이어	2,378	61	38.98
조시영	대창	1,800	46	38.96

3. 그룹별 임원 보수액 비교 (퇴직금 등 제외)

보수항목 중 퇴직금의 경우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중간에 퇴사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임원의 성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원간 보수액 비교 결과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하 그룹별 임원 보수액 비교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그룹별 임원 보수 현황 및 보수격차

그룹별 임원의 평균 보수액 지급 현황은 다음 <표 15>와 같다. 5 억원 미만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은 각 회사의 보수총액 합계에서 5 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액을 차감한 보수총액을 5 억원 미만 사내이사 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¹⁴

우선, 분석대상 48 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249 개 계열사 1,796 명 임원의 평

¹⁴ 회사의 공시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금액이 산출되는데, 표 아래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균보수액은 181 백만원이었고, 이중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평균보수액은 1,521 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8.41 배였다.

둘째, 임원의 평균보수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511 백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삼천리그룹 436 백만원, 현대중공업 394 백만원, 대우건설 373 백만원, 삼성그룹 367 백만원, 한화그룹 334 백만원 순이었다.

셋째, 5 억원 이상의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평균보수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 2,784 백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2,179 백만원, LS그룹 2,143 백만원, 한화그룹 2,065 백만원, 현대중공업그룹 2,045 백만원, 한진그룹 2,014 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5 억원 이상 보수를 지급받은 임원들의 평균과 임원의 평균보수액의 보수 격차가 큰 그룹은 한진그룹으로 보수격차가 50.33 배였다. 그 다음으로 LG 그룹 (16.23 배), 한국타이어그룹 (15.66 배), 효성그룹 (14.78 배), 한솔그룹 (14.59 배)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기업집단별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퇴직금 제외)

(단위: 개, 명, 백만 원)

그룹명	계열회사 수	소속임원 총수	보수가 공시된 임원의 수	5 억원 이상 임원의 평균 보수액	5 억원 미만 사내이사의 평균 보수액	차이(배)
한진	6	41	6	2,014	40 ¹⁾	50.33
LG	12	88	11	1,755	108	16.23
한국타이어	3	16	3	1,725	110	15.66
효성	6	42	1	1,592	108	14.78
한솔	11	63	3	1,872	128	14.59
한라	3	33	3	1,135	106	10.74
금호아시아나	4	33	1	2,784	267	10.42
KT&G	2	13	1	1,287	124	10.40
LS	6	42	5	2,143	238	9.01
GS	8	60	5	1,127	139	8.11
현대	3	25	3	849	126	6.74
한화	7	61	4	2,065	334	6.18
동국제강	3	35	1	1,267	209	6.07
CJ	9	52	8	1,223	219	5.59
롯데	8	58	6	1,150	207	5.55
현대중공업	3	15	3	2,045	394 ²⁾	5.20
SK	17	114	14	1,351	266	5.08
삼성	18	136	18	1,820	367	4.95
두산	6	45	5	1,318	286	4.61

동부	8	44	3	924	212	4.35
태영	4	32	1	1,130	270	4.18
코오롱	6	44	6	956	229	4.18
신세계	7	38	5	1,123	305	3.68
KT	9	71	1	574	157	3.66
대우조선해양	1	8	1	889	245	3.63
아모레퍼시픽	2	15	2	1,680	511 ²⁾	3.28
OCI	7	45	4	747	232	3.23
태광	4	26	1	580	182	3.19
영풍	6	43	2	744	235	3.17
KCC	2	20	2	685	217	3.15
대성	6	37	3	734	252	2.92
현대산업개발	2	14	1	762	271	2.81
한진중공업	3	20	3	667	242	2.76
세아	4	25	2	564	232	2.43
삼천리	1	11	1	930	436	2.13
대우건설	1	7	1	713	373 ²⁾	1.91
교보생명보험	1	5	-	-	329	-
농협	3	31	-	-	183	-
대림	3	19	-	-	259	-
이랜드	1	6	-	-	36 ³⁾	-
하이트진로	2	13	-	-	149	-
한국가스공사	1	18	-	-	107	-
한국전력공사	3	30	-	-	149	-
미래에셋	2	12	2	681	- ³⁾	-
S-Oil	1	7	1	649	- ³⁾	-
포스코	7	45	5	1,111	-467 ⁴⁾	-2.38
현대자동차	11	89	11	2,179	-114 ⁵⁾	-19.09
현대백화점	6	49	5	1,997	-103 ⁶⁾	-19.44
합계	249	1,796	164	1,521	181	8.41

- 1) 한진그룹의 경우 한국공항 퇴직임원의 보수 (혹은 퇴직금) 1,608 백만원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 2) 보수액에는 퇴직임원의 보수액이 포함되었으나, 이사수는 기말 현재 이사수로 대응되지 않음
- 3) 5 억원 미만 보수를 수령한 사내이사가 비상근이사로 무보수로 추정됨
- 4) 포스코 퇴직임원의 보수 8,266 백만원이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음
- 5) 현대하이스코 퇴직임원의 퇴직금 4,254 백만원이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음
- 6) 현에이치씨엔 퇴직임원의 보수 3,245 백만원이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음

(2) 총수일가의 보수액

다음 <표 16>는 그룹별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액의 총액 상위 10 명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분석은 총수일가가 소속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¹⁵ 분석결과 현대차그룹 정몽구가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로부터 총 10,750 백만원을 받아 보수액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한진그룹 조양호 6,100 백만원(한진, 대한항공, 한국공항, 한진칼), CJ그룹 손경식 5,602 백만원(CJ제일제당), SK그룹 최신원 4,700 백만원(SK), 현대백화점 정지선 4,504 백만원(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등 순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의 경우 SK그룹 최태원, 한화그룹 김승연, CJ그룹 이재현 등 총수가 보수 수령 상위권에 기록되었으나, 이들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도 재판 중인 상태로, 각각 문제가 된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재선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임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전혀 없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총수일가 보수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그룹명	총수일가	보수합계	계열회사	보수액
현대차	정몽구	10,750	현대제철	740
			현대자동차	5,720
			현대모비스	4,290
한진	조양호	6,100	한진	1,087
			대한항공	2,628
			한국공항	774
			한진칼	1,611
CJ	손경식	5,602	CJ제일제당	5,602
SK	최신원	4,700	SKC	4,700
현대백화점	정지선	4,504	현대그린푸드	607
			현대백화점	3,897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4,436	아모레퍼시픽	4,436
LG	구본무	4,423	LG	4,423
롯데	신동빈	4,350	롯데케미칼	1,625
			롯데제과	1,175
			롯데쇼핑	1,550
효성	조석래	4,063	효성	4,063

¹⁵ 현대차그룹 정몽구와 신성재는 각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현대차	신성재 ¹⁶	3,774	현대하이스코	3,774
-----	-------------------	-------	--------	-------

(3)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보수액 비교

1)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격차¹⁷

임원별 보수 공시로 총수일가인 이사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 확인이 가능하다. 즉, 총수일가가 계열사 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대상으로 임원 전체에 지급된 보수액(사내이사 보수액)에서 총수일가 이사의 개별보수를 뺀 후 나머지 이사의 수로 나누면 총수일가 이사의 보수와 전문경영인의 보수평균 간 비교가 가능하다.¹⁸ 아래 <표 15>는 총수일가 보수와 전문경영인(사내이사) 보수의 격차를 분석하여 상위 20개 회사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 보수격차가 가장 큰 사례는 LS산전이었는데, 총수일가인 구자홍의 보수총액 2,205 백만원은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인 100 백만원에 비해 22.05 배 많았으며, 총수일가인 구자균의 보수액 1,381 백만원 또한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13.81 배 많은 것이었다. 보수격차 3 위는 한진그룹 소속의 한진칼 조양호였는데, 조양호는 한진칼에서 1,611 백만원의 보수를 받아 총수일가를 제외한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 158 백만원보다 10.17 배 많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그외 한솔케미칼 조동혁이 9.34 배, E1의 구자용 9.15 배,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8.78 배, 대한항공 조양호 8.11 배, 동국제강 장세주 7.41 배, CJ제일제당 손경식 7.19 배 등의 순으로 전문경영인과의 보수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 상위 20개 회사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보수액 (백만원)	총수일가 제외 임원보수 평균	차이 (배)
LS	구자홍	LS산전	2,205	100	22.05
LS	구자균	LS산전	1,381	100	13.81

¹⁶ 현대하이스코 신성재의 경우 회사로부터 9,099 백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퇴직금 4,254 백만원 수령하였고, 기타근로소득에 포함된 공로금은 급여 및 상여가 아닌 퇴직금 성격으로 추정되나,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대로 기타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것이다. 기타근로소득의 공시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재직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창출 등을 감안하여 공로금 2,750 백만원이 지급"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¹⁷ 본 분석은 총수일가는 모두 5 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¹⁸ 총수일가 보수제외 임원보수평균=(임원보수액-5 억원 이상 총수일가 이사 보수액)/(임원보수 기준 임원수-5 억원 이상 총수일가 이사 수)

한진	조양호	한진칼	1,611	158	10.17
한솔	조동혁	한솔케미칼	2,616	280	9.34
LS	구자용	E1	2,855	312	9.15
현대자동차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3,774	430	8.78
GS	허태수	지에스홈쇼핑	1,556	189	8.24
한진	조양호	대한항공	2,628	324	8.11
SK	최신원	에스케이씨	4,700	579	8.11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	1,425	192	7.41
CJ	손경식	CJ제일제당	5,602	779	7.19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모비스	4,290	670	6.40
금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2,784	473	5.89
동국제강	장세욱	동국제강	1,108	192	5.76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4,436	791	5.61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자동차	5,720	1,031	5.55
LS	구자열	LS	2,248	419	5.37
한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1,225	238	5.15
한라	정몽원	만도	677	133	5.10
LG	구본무	엘지	4,423	943	4.69

2) 보수액 최상위자와 차상위자 보수 격차¹⁹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해서 5 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임원을 대상으로 각 회사별 최상위 수령자와 차상위 수령자 간 보수차이가 큰 20 개 회사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18>과 같다. 확인 결과, 한국공항 조양호의 보수총액 774 백만원이 차상위 보수수령자인 김홍식의 116 백만원²⁰보다 6.67 배 많이 보수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뒤를 이어 현대모비스 정몽구 5.87 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4.97 배, 삼성증권 김석 4.48 배, 한진중공업 조남호 4.18 배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액 최상위-차상위 수령자 간 보수차이가 가장 큰 20 개 회사 임원들 면면

¹⁹ 본 분석은 5 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동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볼 경우 5 억원 미만으로 공시되지 않는 자가 차상위 급여수령자일 수는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된 임원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²⁰ 김홍식은 2014 년도 한국공항에서 1,608 백만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이중 1,492 백만원은 퇴직금으로 수령하여 실제 급여 및 상여 등으로 받은 보수는 116 백만원이었다. 본 분석에서 임원의 급여가 5 억원 미만인 경우 이와 같이 퇴직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을 살펴보면, 최상위 보수수령자 20 명 가운데 16 명이 총수일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작년 19 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하는 관행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CEO가 평균적으로 보수공시대상자 5 인이 받는 보수의 약 36%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CEO 외의 임원들이 동일한 보수액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그 격차는 2.25 배 많은 것이다. 앞서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수격차 상위 20 개사의 사례에서 총수일가인 임원이 전문경영인의 보수액평균보다 4 배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그 범위를 좁혀 연간 보수액이 5 억원을 넘는 임원들 간의 최상위 보수수령자와 차상위 보수수령자 간의 보수격차를 분석하였다. 또, 정확한 보수비교를 위해 2014 년 기간 중 퇴임한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한화그룹 총수인 김승연의 경우 작년 2 월 18 일 (주)한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작년에 받은 보수액총계가 (주)한화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분석의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보수액 최상위 수령자와 차상위 수령자의 보수격차는 현대모비스에서 5.87 배로 가장 컸다.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는 정명철 대표이사보다 3,559 백만원이 많은 4,290 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한항공이 5.74 배로 보수격차가 컸는데, 특이한 점은 최상위와 차상위 보수수령자 모두 총수일가인 조양호와 조현아인 점이다.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총수인 서경배가 심상배 대표이사보다 4.97 배의 보수를 받았어 비교적 큰 보수격차를 드러냈다.

보수격차가 큰 20 개 회사의 대부분인 16 개 회사에서 최상위 보수수령자가 총수일가였고, 전문경영인이 최상위 보수를 받는 회사는 4 개에 불과했다. 작년의 경우 무려 19 개 회사의 최상위 보수수령자가 총수일가였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직급이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보수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한화의 경우 작년 2 월 18 일 퇴임한 김승연이 퇴직금 5,744 백만원 외 장기성과급으로만 1,951 백만원 수령하였는데, 동사 사업보고서는 “과거 3 년(‘11 년~’13 년)간 적립된 자원(기준연봉의 0~100%)에 장기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데, 재무성과로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신장에 기여한 점, 그리고 비재무적지표로서 원가 절감 및 경영내실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런

데 동사에서 김승연과 같이 장기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대표이사 등의 보수가 143 내지 248 백만원에 불과해 장기성과급 격차 무려 7.8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수일가 특히 총수가 임원들의 보수액 결정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8> 대규모기업집단의 최상위-차상위 보수차이 상위 20 개사 (단위 : 백만원, 배)

	대규모기업집단	회사명	최상위 수령자(A)		차상위 수령자(B)		(A)-(B)	(A)/(B)
			임원	보수액	임원	보수액		
1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정몽구*	4,290	정명철*	731	3,559	5.87
2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2,628	조현아	458	2,170	5.74
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4,436	심상배*	892	3,544	4.97
4	CJ	CJ제일제당	손경식*	5,602	김철하*	1,558	4,044	3.60
5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3,897	김영태*	1,100	2,797	3.54
6	SK	SKC	최신원*	4,700	박장석*	1,400	3,300	3.36
7	효성	효성	조석래*	4,063	이상운*	1,256	2,807	3.23
8	LG	LG	구본무*	4,423	조준호*	1,431	2,992	3.09
9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몽구*	5,720	정의선	1,860	3,860	3.08
10	삼성	호텔신라	이부진*	2,610	한인규	859	1,751	3.04
11	GS	GS홈쇼핑	허태수*	1,556	조성구	545	1,011	2.86
12	LS	LS	구자열	2,248	이광우*	837	1,411	2.69
13	SK	바이오랜드	정찬복*	605	김기호	227	378	2.67
14	롯데	롯데케미칼	신동빈*	1,625	허수영*	619	1,006	2.63
15	KCC	KCC건설	정몽열*	642	임강혁	254	387	2.52
16	삼성	삼성SDI	박상진	2,604	조남성*	1,063	1,541	2.45
17	한화	한화	김승연* (2.18 사임)	1,951	심경섭*	813	1,138	2.40
18	두산	오리콤	고영섭*	1,253	성재철	542	711	2.31
19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조양래*	2,842	조현식*	1,380	1,462	2.06
20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박승하*	2,869	우유철*	1,399	1,470	2.05

* 퇴직금 제외 보수액 5 억원 이상 및 2 인 이상 임원별 보수를 공시한 회사가 대상임(3 개월 미만 재직자는 한화 김승연 외 제외함)

** 음영은 총수일가, *표시는 대표이사임

(4) 2014 년 중 퇴임한 총수일가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

다음 <표 19>는 총수일가 임원이 2014 년 중 그룹 계열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인 해 퇴직금을 수령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는 현대

제철의 사내이사직을 퇴임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10,820 백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한화그룹 김승연은 작년 2월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계열사에서 일괄 사퇴하였는데, 이중 (주)한화의 퇴직금이 5,744 백만원, 한화케미칼의 퇴직금이 3,071 백만원으로 퇴직금만으로 총 8,815 백만원을 지급받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8,075 백만원, 한진해운 최은영 5,244 백만원, 가온전선 구자엽 5,029 백만원, 대한항공 조현아 1,018 백만원 등의 순위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한화그룹 김승연과 동일한 이유로 이사직을 사임한 최태원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퇴직금 등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기이사직만을 사임하고 미등기로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²¹

통상적으로 재임기간이 길고 재임 당시 보수수령액이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회사별로 상이하여 비슷한 재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퇴직금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주)한화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임원의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시 월 기본 보수액 3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동부제철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각각 산출한다. 반면, 대한항공 조현아의 경우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평균급여의 4개월분을 곱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회장은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 부사장이상은 재임기간 1년에 3~5개월분, 전무, 상무(등기)는 재임기간 1년에 2~4개월분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늘리고, 개임별 지급률은 재임기간 중 성과 및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기존의 일률적인 퇴직금 지급을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성과와 연동된 상여 내지 성과급 항목이 있음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 임원들에게 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²¹ 실제 최태원은 SK(주),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미등기임원이다.

<표 19> 퇴직한 총수일가 임원의 퇴직금 수령 현황

(단위 : 백만원)

그룹명	총수일가	회사명	퇴직금	재직기간	비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제철	10,820	10년 3월	사임 후 미등기임원
현대자동차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8,075	17년	
한화	김승연	한화	5,744	6년 5월	2014.2.18 사임
		한화케미칼	3,071	3년 5월	2014.2.18 사임
한진	최은영	한진해운	5,244	7년 10월	기타 비상무이사
LS	구자엽	가온전선	5,029	11년	
한진	조현아	대한항공	1,018	9년 4월	
동부	김준기	동부제철	208	2년 7월	
대성	김영훈	대성창투	104	12년 6월	현직이나 퇴직금 지급

* 정몽구, 신성재, 구자엽, 조현아의 퇴직금에는 퇴직급여와 기타근로소득(퇴직위로금 및 한도초과액)이 포함된 것임

4. 맺는 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760 개 상장회사 중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는 회사의 비율은 24.77% (유가증권 상장회사 39.45%, 코스닥 상장회사 14.37%)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상장회사의 75% 가량이 여전히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장회사의 임원 10,929 명 중 연간 보수액이 5 억원 이상으로 개별보수가 공시되는 임원의 비율은 5.94% (유가증권 상장회사 9.49%, 코스닥 상장회사 3.00%)뿐이었다.

둘째, 전체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이 285 백만원 (유가증권 상장회사 405 백만원, 코스닥 상장회사 200 백만원)인 반면, 개별보수 공시의 대상인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은 1,257 백만원 (유가증권 상장회사 1,380 백만원, 코스닥 상장회사 932 백만원)으로 그 보수격차가 4.41 배였다.

셋째, 임원 간의 보수격차도 문제지만 CEO 및 경영진과 일반직원 간의 보수액 차이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임원은 일반 직원보다 평균 9.75 배 많은 보수를 받았고, 기타회사는 그 격차가 4.61 배였다. 개별회사를 기준으로 보수액 최상위자와 직원 보수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최대 142.87 배였고, 100 배 이상 보수격차가 발생하는 사례만 5 건에 달했다. 성과와 기여도에

기하지 않은 보수격차는 회사 및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CEO 및 경영자와 직원 간의 합리적인 보수액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에서 5 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은 총수일가의 평균보수액은 2,052 백만원으로 전문경영인 1,309 백만원보다 1.57 배 많았으며, 기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평균보수액 1,054 백만원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액 995 백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분석결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의 직급에 따른 보수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특별한 근거 없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보수액을 산정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는 1.66 배로 더 커졌고, 직급간 보수격차도 대표이사 1.60 배에서 1.74 배, 이사 1.57 배에서 1.59 배로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기업집단별 임원보수 현황을 보면, 5 억원 이상 보수수령 임원과 나머지 임원 간의 보수격차는 최고 50.33 배 (한진그룹)에 달했다. 또, 총수일가와 총수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격차도 최대 22.05 배 (LS산전 구자홍)였으며,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이 2 인 이상 있는 회사에서의 보수액 최상위와 차상위 간의 격차는 최대 5.87 배(현대차 정몽구-정명철)였다. 같은 직급의 임원 간 보수격차가 성과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질 때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현재 공시되는 보수산정 내역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2014 년도에서는 총수일가가 자발적 또는 타의에 의해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기간 재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퇴직 전 급여액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영향력 아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